



사 천 시



수신자 귀향기원비 건립실행위원회 대표 구로다후쿠미
(경유)

제목 귀향기원비 원상회복 및 공식사과 요구에 대한 회신

1. 먼저 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2. 귀향기원비와 관련하여 부득이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사천시 문화관광과 -6367(2008.5.14)호로 알려 드렸으며
3. 귀향기원비 건립에 대한 귀하의 순수한 뜻을 받아들여 우리시에서 부지 제공을 하였고 이후 귀향기원비가 건립되었으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 5월 2일 귀향기원비가 건립된 이후 지역여론 악화와 귀향기원비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의 시청 향의 방문과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사납게 변하고 있었고
4. 제막식 하루전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움직임이 있어 부득이 제막식을 거행할 수 없음과 귀향기원비를 해체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렸고, 또한 제막식 당일에도 해상관광호텔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5. 제막식은 못하였지만 당일 귀향기원비 건립 현장 방문시 보았다시피 귀향기원비를 당장 철거하지 않는 우리시를 비난하면서 즉시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직접 목격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향기원비 자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 그 이후에 귀향기원비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계속되는 강력한 철거요구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철거와 함께 파쇄하여 처리하라는 요구 등이 있었고, 또한 시민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아 부득이 우리시에서는 귀향기원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래 형상대로 해체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7. 우리시에서는 귀향기원비 해체가 사유재산의 훼손보다는 귀향기원비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귀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도 해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귀하께 서운 하기도 합니다.
8. 비록 귀하께서 고 탁경현을 비롯한 사천 출신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과거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한국민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지원으로 원상복구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귀하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끝.

사 천 시



직원

권형기

문화예술담당

권형기

문화관광과장 김대주

총무국장 출장

부시장

김석훈

시장

06/02
김수영

협조자

시행 문화관광과-7309 (2008.06.02.)

접수

우 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 www.sacheon.go.kr

전화 (055)831-2710

전송 055-831-6024

/ man@e4000.net

/ 공개

친절한 미소! 사천시의 얼굴입니다